

# 협재·금능 야영장 유료 운영 '만지작'

### 제주시, 방치 텐트 철거 해수욕장법 시행 맞춰 검토 마을회와 협력 성수기에 한시적 야영장업 등록 추진

협재·금능해수욕장 내 '야영 금지 구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제주시가 여름 성수기에 야영장을 유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영 금지 구역 안내판을 세운 녹지 공간에 대한 울타리 설치 공사에도 나선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야영장 유료화 계획은 해수욕장법 개정에 따라 6월 28일부터 장기간 설치된 텐트를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되면서 이와 맞물려 야영객들의 원활한 시설 이용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금능해수욕장 야영장 일부 구역에서 여름철 유료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마을회 등에서 한시적 야영장업 등록해 협재·금능해수욕장 야영장 전 구역을 대상으로 유료로 운영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이때는 방문객이 몰리는 시기여서 녹지 공간 일부도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협재·금능해수욕장은 코로나19 이후 야영객이 증가하면서 무분별

하게 텐트를 설치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르는 등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일부 주민들은 제주시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파손되고 방치된 텐트가 강풍에 날려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철거를 요구한 일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는 지난 2월 첫 행정대집행을 통해 흥물처럼 남

아 있는 텐트 7동을 철거했다. 최근에도 사전 철거 예고 등을 포함 텐트 8동에 대한 처리를 추진 중이다. 제주시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철거가 가능하기 전까지는 안전사고 예방이나 미관을 위해 파손된 텐트를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6월 중순까지 녹지 공간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를 벌여 야영 금지 구역을 알릴 예정이다. 현재는 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야영을 금하는

녹지 공간과 야영장의 구분이 무의미한 상태다. 내부 지침으로 마련할 텐트 장기 방치 기준은 각 마을회 의견 등을 종합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별도 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영장을 수시로 방문해 관리하기는 어렵다"며 "올여름에는 마을회와 협조해 야영장을 유료로 가동하면서 시설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녹지공간 안내판 너머에 텐트들이 자리 잡고 있다.

강희만기자

# 무상급식 13년... '학교급식 노동자의 삶'

###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도의회서 사진전

### "초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각종 산재와 폐암에 노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가 "학교급식 노동자는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며 8일부터 제주도의회 2·3층 통로에서 '학교급식 노동자 사진전'을 열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사진전은 '학교 무상급식 13년 차'를 맞는 때에 "아이들에게 평등한 밥, 건강한 밥을 먹이는 동안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각종 산재,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알리면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는 사진전 개최에 맞춰 전시 첫날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실의 1인당 식수 인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2~3배나 높고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만들어내야 하는 학교급식의 특성상 압축 노동, 초강도 노동에 만성

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학교급식실 노동 강도의 근본 원인인 식수 인원 배치 기준을 낮춰 급식실 적정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는 급식실 산재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도 쉬지 못하는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려면 대체 전담 인력의 확대가 필수"라며 "현재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대체 전담 인력에 대한 현장 반응이 매우 긍정적인 만큼 하루빨리 전체 지역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진선희기자

독자제보 750-2232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 부영사랑으로

#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에 가려진 비양심

### 제주시 도남동 오등1길 인근 건축·생활폐기물 투기 '눈살'

시, 최근 3년 불법투기 2117건 적발

불법 폐기물 투기를 막기 위한 행정당국의 홍보에도 여전히 불법 투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시 도남동 오등1길 인근에는 도로를 따라 곳곳에 폐기물 불법 투기를 금지하는 현수막과 경고판이 설치돼 있었다.

길가에는 페트병 등 생활 쓰레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 심지어 비닐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그대로 투척한 것도 발견됐다.

불법 투기를 하지 말라는 현수막 뒤편 풀숲 안쪽을 살펴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다. 부서진 욕조와 세면기가 버려져 방치돼 있고 커다란 플라스틱통 등 건축폐기물로 추정되는 온갖 폐기물이 널브러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라면봉지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검정 비닐봉지에 담겨 투기돼 있었다. 비닐봉지를 찢어내온 쓰레기들은 색이 변색돼 있어 오랜 기간 버려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구간에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경고문'이라는 제목의 표지판도 설치돼 있다.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적발 시 고발 조치되며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또 주변 CCTV 등을 통해 무단투기 행위가 적발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지만 경고문이 무색할 만큼 투기된 폐기물이 여전히 눈에 들어왔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시 읍면동 전 지역에서는 총 2117건의 불법 폐기물 투기가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무단투기를 금지하는 현수막(사진 위)과 그 뒤편에 가득 쌓여 있는 불법 투기 쓰레기들.

842건, 2021년 624건, 2022년 651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과된 과태료도 2020년 1억1831만원, 2021년 8425만원, 2022년 8755만원 등 총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끊이지 않는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CCTV를 이용한 단속 강화와 강력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 단속과 처리는 각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에 대해 이도2동과 함께 실사 후 과태료 부과나 청결 유지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 5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다채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기념식, 청소년 어울림마당 진로축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오는 13일 청소년의 거리에서 '청소년 어울림마당 진로축제'가 개최된다. 행사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의 체험부스를 마련해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 경험이 제공된다.

또 청소년 참여권 실현을 위한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가 오는 20일 제주의 환경을 주제로 열린다.

그밖에 제주시에서 20일 제주시 청소년 문화축제 YAP! 행사가 제주시 북수구 광장에서 열리고 서귀포시에서는 15일 대정항교에서 전통 성년례 행사, 20일 청소년 건전육성 한마당인 서귀포시 청소년 페스티벌이 천지연 칠십리 야외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한라일보 창간 34주년을 축하합니다

江山土建

강산토건(주) (주)부림종합건설

토목 건축 설계 및 시공 개발행위 인허가 외

토공, 철근, 상하수도, 석공사업, 포장, 도장, 하수도시공, 준설, CCTV 촬영

공기압, 부공기압, 수압, 수밀, 연막, 색소시험, 용역

강산토건은 풍부한 경험으로 모든일에 최고의 정성과 기술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도 대표 건설업체입니다. 저희는 환경을 더 푸르고 살기좋은 자연으로 되돌려 드리고자 노력하며, 토목공사 및 공공상·하수도 시공 전문업체로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 고객만족 100% 보답해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친절한 상담과 철저한 업무처리로 고객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홍 상 기**

dream8243@naver.co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 1

공간정보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 **강산토건(주)**

GIS(지하시설물) 측량  
현황측량  
항공사진 촬영  
정사영상 제작  
수치지도 제작  
3차원 공간정보  
디지털트윈  
GIS 시스템 개발

T 064-753-8243  
H 010-3691-8243

**강산토건(주)**